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는 그리스도」, 지오바니 바티스타 카스텔로, 1598년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특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이사야 22,19-23

화답송



(후렴) 주님, 당신자애 영원하시니 손수빛으 신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사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로마서 11,33-3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 마태오 16,13-20

성가 | 입당성가 [403]

예물준비 [217]

영성체 [166]

파견성가 [437]

미사 봉헌

연미사

황서진 소피아
김재윤 요셉
박송남 프란치스코

봉헌

황지훈 아녜스, 이영주 비오
김태경 사도요한
박정호 로사

생미사

김윤수 미리암
유기호 베네딕도 영육건강
이영애레지나 이지연안나레지나 이지훈아녜스
김영희 클라라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
김명숙 건강
이로잔 캐더린 건강
박해화 도미니카
박해화 도미니카

봉헌

이정무 테오도로, 이정후 도미니코
익명
익명
성령기도회
박알버트, 아녜스
강혜숙 바올라
이안나
송준호 바오로
울뜨레야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님 특강

8/27(주일), 11시, 다미아노홀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기쁨
을 전하고, 교리를 해드려,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예비신자분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단기 출석교육' 또는
'직접 방문교리' 가능합니다.

▶본당 달력 광고 안내 신청

2024년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달력 제작
하오니, 달력에 사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마감: 9/10(주일) \$ 150

▶미사지향예물 접수 안내

미사지향예물을 신청하시는 교우분들은 2023년 연초부터
실행하고 있는 다음 규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상: 미사지향 예물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외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 주일미사후 다미아노 홀, 또는 사무실. 원하는미사
신청일 한 주전 주일까지 신청가능 하십니다.

▶성경공부 (BIBLE ACADEMY 2학기) 예언서 개강

주일반	9/10(주일)1pm	신청마감:9/3 효주수녀
목요반	9/14(목) 10am-11:20am	

▶2024년 부활절 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교리 첫만남: 2023년 10/8(주일), 교육관 3A,
세례일: 2024년 3/30(토) 부활성야
교리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교우분 한명이 예비신자 한 명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 효주수녀 347.834.5784

▶주일학교 교사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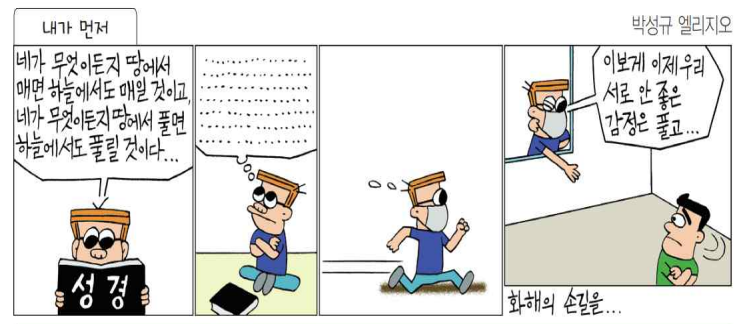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교리 교사로 봉사하실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신청: 김가롤로 신부님

▶여행중 미국내 성당 찾기

여행 중에도 주일미사는 꼭 참여 합시다.
Call 1-800-Mass Time (1-800-627-7846)
또는 www.masstimed.org 검색하세요.

▶여름철 미사 참례시 복장과 자세

미사는 제사 의식임을 기억하시고, 예의에 어울리는
옷차림으로 미사에 참례하십니다.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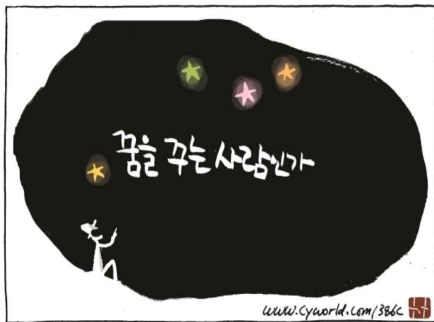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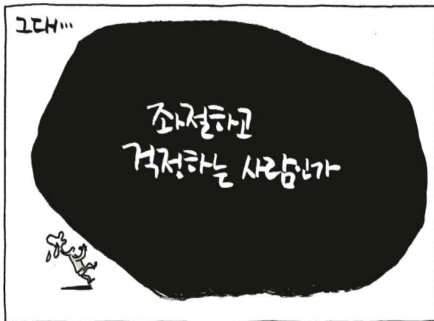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p>▶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p> <p>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p>
<p>▶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p> <p>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p>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사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더큰집
 TEL. 212-564-8238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347-840-2112
 (32 St.- 33 St.)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8/27	이지훈 아네스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민재인 데레사	민재인 데레사	민덕미 안젤라	양지수글라라 김승현마리아
9/3	백이백 아오스딩	민완준 필립보	민덕미 안젤라	민덕미 안젤라	김중선 비비안나	김승현마리아-한서희데레사-

▶2024년 성지 순례단 모집

"약속의 거룩한땅, 요르단, 이스라엘"

날짜: 2024년 4월 15일~ 26일(11박 12일)
 순례지: 모세구리뱀 느보산, 와디럼광야체험, 사해, 베들레헴, 주님성탄성당, 유다광야, 꿈란공동체, 예리코유혹의산, 나자렛, 주님탄생예고성당, 갈릴레아, 베드로생가, 갓세마니, 거룩한 무덤대성당, 승천성당 등. 경비: \$3,700 예약금: \$500
 문의:박일버트 646-201-0175 신청순 30명 9/30까지



성경은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좋은 말(명언)들이 많습니다. 말은 존재를 드러내기에 누가 하느냐에 따라 또는 듣는 이가 어떤 처지 있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결정됩니다. 말은 무게에 따라 금방 사라지기도 긴 여운을 남기기도 때로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류재은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성경 안에도 참으로 많은 말씀이 담겨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또한 읽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그 무게가 달리 느껴집니다. 저도 그 무게를 느끼기 위해 내용에 집중하고 나의 처지에 대입하면서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무거운 초대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 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군중과 제자들의 답은 다릅니다. 군중에게 ‘예수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징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자신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먼저 바라봅시다. 우리가 말씀의 내용과 자신의 처지만을 보려 한다면 예수님을 얻으려 하기보단 표징만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에게 성경은 명언집이나 교훈을 주는 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얻는 책입니다. 말씀으로 성화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내가 하느님을 알아가며 종국에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의 모습이 점점 하느님께 스며들어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의 성숙과 완성은 아버지의 은총에 달려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